

01 교회소식

생명과 소망의 양식을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책자를 통해 전 세계에 전해져 독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너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과정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03 신앙상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성경을 근거로 해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으나 오늘날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와 참 의미를 살펴본다.

04 간증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일흔이 넘는 나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사는 조영순 권찰과 시공을 초월한 권능을 체험한 인도 아무나 자매 간증.

# 만민뉴스

제671호 2015년 2월 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전 세계 영혼을 살리는 '펜의 힘'

###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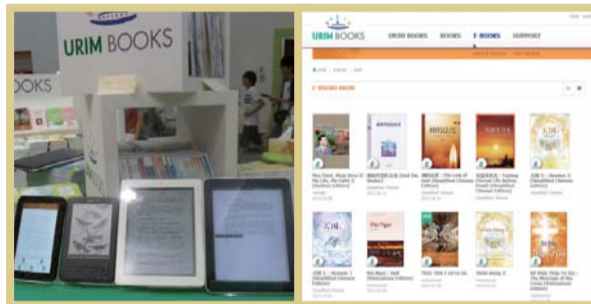
**다양한 책자 발간:** 이재록 목사는 무수한 금식과 불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며 교회 개척 이후 영혼 구원을 위해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1987년 신앙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발간을 시작으로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지옥', '영혼육', '주님의 자취' 등 90여 권을 발간했다.



**전 세계 유통망 구축:** 미국 카리스마 미디어, 이탈리아 이반젤리스타 미디어, 대만 천은 등 해외 우수 19개 출판사와 우크라이나 뉴엔베스트, 레바논 안토인 서점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출판·유통되고 있다. 세계최대인터넷서점 아마존닷컴(www.amazon.com)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구입이 가능하다.



**국제도서전 전시:**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국 베이징, 북엑스포아메리카, 영국 런던, 이탈리아 볼로냐 아동, 인도 뉴델리, 멕시코 과달라하라 등 주요 도서전에 참가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자책 발간:** 현재 49개 언어, 326종의 전자책(e-book)이 발간됐다. 이는 인터넷 교보문고, 리디북스를 비롯해 아마존닷컴, iBookstore, 구글플레이 북스토어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Title	Author	Year of Publication	Number of languages with translations	Origin / Language
The Bible	See Authorship of the Bible	See Dating of the Bible	2,883 (see www.bible.com)	Hebrew, Aramaic, Koel Greek
The Good Soldier Švejk	Jaroslav Hašek	1923	58 <sup>(90%)</sup>	Czech
The Message of the Cross	Jaerock Lee	2002	57 <sup>(90%)</sup>	Korean
Heidi	Johanna Spyri	1880	53 <sup>(90%)</sup>	German
Qur'an	See Origin and	650	50 (complete), 114 (portions) <sup>(90%)</sup>	Classical Arab

**다국어 저서:** 현재 58개 언어 306종으로,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서 많이 번역된 저작물 목록에 설교집 '십자가의 도' (57개 언어)와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35개 언어)이 올랐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가 담긴 다국어 신앙서적을 읽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간증이 쇄도하고 있다. 많은 독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해지고, 천국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주어지며,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 물론 치료의 역사도 체험했다고 한다.



**“직원이 우울증을 치료받았어요”**  
대만, 천은 출판사 멩웡핑 사장

저희 직원 중 하나는 우울증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약을 먹어야 했고 일을 할 때도 집중하지 못했지요. 항상 불만이 가득했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록 목사의 '권능' 책자를 편집하면서 우울증이 치료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재록 목사가 겪으셨던 질병의 고통은 본인이 겪은 고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과 생각을 바꿨더니 우울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저희들에게 아주 특별했습니다. 제게도 큰 기쁨이 됐지요.



**“천국 소망과 사모함이 더해졌어요”**  
콜롬비아, 사무엘 오로스고 바르셀로 성도

저는 성경 안에 있는 신비로운 일과 비밀들을 이해하고자 많이 궁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록 목사의 '천국'(상·하) 책을 읽고 천국에 여러 초소가 있음을 알았고, 궁금하던 성경의 비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 믿음은 성장했고 천국을 향한 소망과 영적인 사모함도 더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태국, 나다곤 툴마삿 성도

저는 크리스천이었지만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서 세상 방법을 의지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 나의 신앙'을 읽은 뒤에는 아플 때도 저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으면 치료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당회장님이 각종 예배에 참석하실 때마다 공수로 가지 않았다는 내용에 감동이 돼 저도 항상 예배 때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드리게 된 후 물질의 축복도 임했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정립됐습니다”**  
김용훈 성도

당회장님 저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제 안의 비진리가 허물어지고 믿음의 기초가 정립됐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도'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왜 아무도 내게 기독교가 이런 것이라고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가?' 하고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희생적 사랑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영혼을 '지옥' 책이 일깨워주었습니다”**  
인도, 셀바라지 성도

이재록 목사의 '지옥' 책은 어느 교회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로 잠자고 있던 제 영혼을 깨웠습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기를 통해 받은 죄성으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집에 책자를 비치해 놓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는데, 한결같이 "최고, 최고!"라고 외치며 감탄을 합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 3:7~10)

# 너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셨지요. 당시 근동 지방에는 7년이나 지속되는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7년간의 재앙을 대비하므로 애굽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지요.

이렇게 요셉에게 크게 은혜를 입은 애굽 왕은 요셉의 일족, 곧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으로 이주해 들어오는 것을 크게 환영하며 기꺼이 맞아들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은 7년간의 기근 중에도 요셉 덕분에 애굽의 식량을 먹으며 평안히 거할 수 있었고 그 뒤로도 계속 애굽에 살면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왕이 죽은 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번창하는 이스라엘 족속을 핍박한 나머지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림으로 아예 이스라엘 족속의 후손을 없애 버리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멸족의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 2.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철저히 낮아져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모세

이런 암울한 고통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주관해 살리게 하심으로 그를 애굽 왕의 궁전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모세를 길렀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뤄내신 일들입니다.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궁전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동시에 모친으로부터 자기 민족과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강대국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고난받는 동족에 대해 고민하던 모세는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을 매질하는 애굽 사람을 죽인 후,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거칠고 험한 광야 생활이 시작됐고, 자신의 앞날에 대한 계획이나

자기 민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소망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나약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나마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생명조차 위협받는 도망자 신세이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왕자로서 당당한 모세가 아니라, 광야의 양치기로서 철저히 낮아진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자기를 부인해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그 섭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법을 배우려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 경우만 봐도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면 반드시 이뤄냈으며 제 능력과 지혜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장차 훌륭한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리라는 포부와 계획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7년간의 질병과 가난을 통해 철저히 제 자신을 부인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으로 생명 하나도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온갖 질병을 고쳐주셨으며 주의 종으로 부르셨지요. 이때만 해도 제게는 개척할 돈도 없었고, 설교할 언변도 없었습니다. 또한 주의 종으로서 너무 내성적이었으며 신학교를 가기에는 나이도 많고 기억력도 없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권능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모세도 하나님께 순종해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 광야에서 40년간 철저히 깨어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 3.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도록 표적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모세가 광야로 도망친 후에도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핍박과 강제 노역이 계속됐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심히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 앞에 나타나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입장으로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일개 양치기일 뿐인 자신에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줄 리도 없거니와 이스라엘 민족도 믿고 따라와 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세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왕에게 할 말과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 주셨습니다. 곧 지팡이를 던지니 뱀으로, 다시 잡으니 지팡이로 변했고, 손을 폼에 넣었다 꺼내니 문둥병이 발하고, 다시 폼에 넣었다 꺼내니 온전해졌지요.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고 애굽을 향해 떠났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영적으로 믿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다리 힘이 약한 사람들이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내보이면 능히 행할 수 있지요. 이처럼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므로 두려움과 민망함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으므로 생명을 건 모험의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도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증거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영계가 혼탁하고 흑암이 짙은 오늘날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권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무수한 영혼을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곧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각과 모든 이론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약속에 의지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가나안 정복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과 애굽 땅에 거하게 된 경위와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하게 된 과정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에서는 장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한이 있었지만 이를 팔족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동생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받고자 사모하며 끝까지 침노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후손을 통해 장차 하나님 섭리를 이루기로 정하시고 긴 세월을 연단하셨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고 바로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자 축복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먼저,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을 강대국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후, 그를 통해 애굽을 큰 재앙에서 구원하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6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 때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http://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mailto: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기독교에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

**Q.**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기독교(개신교)에서는 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지 궁금합니다.



**A.**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일요일부터 시작해 일곱 번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1.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이 빛은 영적인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즉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말씀은 영적으로 빛 자체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주 만물 가운데 선포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했습니다. 참 빛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로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 무죄함을 알려 주시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마 12:8)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으로 참 빛이신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었듯이 한 주간의 첫째 날인 일요일은 참 빛이신 주님께서 온 세상에 비추신 날입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장사되셨다가 삼 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사망과 고통의 흑암 속에 살던 영혼들에게 생명의 참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날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의 소망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 곧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 2. 구약에 예언된 ‘안식일 이튿날’ 곧 주일의 의미

레위기 23장 10~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열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 이튿날’, 곧 일요일에 드리는 ‘일 년 된 흠 없는 수양’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신 대로 ‘곡물 첫 이삭’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이처럼 구약 성경에도 일요일 곧 주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 3.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참 안식을 주신 날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인류는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담의 영은 정녕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도 영원한 사망, 곧 지옥으로 가게 됐지요. 그런데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안식은 온전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영원하고 온전한 안식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우리의 몸도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 부활이며 이후에는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요일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참 안식을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을 ‘주의 날’ 곧 ‘주일’이라고 칭하며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전반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떡 곧 주님의 살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즉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을 말하지요.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례)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해서 매 주일 첫날 곧 주일에 헌금을 드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15**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5년 2월1일~2월7일

-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
  - 믿음을 척량하시니 18-22
  - 죽은자를 위한 세례 1-2
  - 마음발을 개간하자 1-5
  - 위로부터 난 지혜 4-8
  - 요한계시록 강해 56
  - 전도 1
  - 3차 영혼육 13-14
  - 천국 41-45
- GCN TV설교**
  - 악을 미워하는 것 3 (이수진 목사)
  - 눈물의 열매 2 (이미경 목사)
  - 착한 행실 / 영의 세계 28 (이희선 목사)
  - 옴기 강해 6 / 생명수 20 (신동초 목사)
  - MIS 강의 26 / 열 재앙 14 (정구영 목사)
  - 성령의 9가지 열매 2 (김수정 목사)
  - 네 생물 (천우진 전도사)
-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여여쁜 울동 2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7
  - English 9
  - 플로리스트 10
  - 옛날 옛적에 4
  - 창조와 과학 4
  - 흥겨운 소리 6
  - 만민 지킴이 6
  - 모두 드려요 22
  - 내 마음의 찬양 5
  - 즐거운 요리 15
  - 뷰티풀 라이프 5
- 해외성회 및 교육**
  - 회상 25
  - 독일 연합대성회 2
  - 2014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 5-6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 “주일 성수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흉추 압박골절을 순간에 치료해 주셨어요”

조영순 권찰 (73세, 2대대 12교구)

2014년 5월 17일 금요일예배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 잠이 들었는데,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제 명치 부위를 짹 쥐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숨이 차서 빨리 걸을 수도, 땀 수도 없었는데 꿈을 꾸 후에는 빨리 걷고 땀 수 있게 됐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에 저는 설교 말씀 듣기를 즐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8월, 또 한 번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15년 전부터 비루관 폐쇄증으로 인해 오른쪽 눈에서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휴지나 손수건을 늘 지참해야 했고 눈곱이 자주 끼니 민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두 차례 수술을 했는데도 차도가 없었지만 ‘2014 만민 하계수련회’ 첫날 교육 후 은사집회 때 당회장님 기도를 받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지요.

감기가 걸린 것도 아닌데 오른쪽 눈에 서만 눈물이 흘러내린 것처럼 오른쪽 콧구멍에서만 누런 코가 흘러내렸습니다. 8월 31일 주일 아침에는 코를 푸는데 뺨뿔림과 동시에 오른쪽 눈이 시원해졌지요. 이때부터 신기하게도 오른쪽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췄습니다.

11월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인천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딸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딸과 외손자랑 함께 지낼 수 있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게 돼 감사했지요. 그런데 또 한 번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 정리를 하느라 화분을 들고 옮기던 중 발이 물건에 걸리는 바람에 그만 화분을 안은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순간 허리뼈가 내려앉는 듯하더니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지요. 외손자의 도움을 받아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X-ray와 MRI 촬영 결과 흉추 12번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최소 3개월 가량 누워있어야 하고 경과를 봐서 수술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요일에 입원했기에 주일에 교회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외손자가 병원 측에 외출 허가를 받아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는 중에도 통증이 심했지만 제 마음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통증이 아주 심해 누워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전 뜰에 주차하고 차 속에서 휴대폰을 통해 GCN 생방송 예배를 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설교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설교 후 해 주시는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고는 ‘치료받았다.’는



▲ 조영순 권찰(왼쪽에서 세 번째)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아 딸 홍선에 집사와 외손자 정준영 형제, 손녀 홍이를 자매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 흉추 x-ray : 흉추 12번 압박골절 소견 보임

믿음이 왔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재채기가 두 번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허리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딸은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차 밖으로 나와 보세요!”라고 했고 저는 통증 없이 일어나 차 밖으로 나와 걸어보는데 자연스럽게 걸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딸은 눈물을 펄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갔는데, 밝은 얼굴로 병실에 걸어 들어오는 저를 본 환자들이 깜짝 놀랐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흉추 압박골절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와 보조기를 착용해도 6개월 이상 지나야 좋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 며칠 만에 통증이 사라지고 걸을 수 있었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좋은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치료받고 응답받았어요”

야무나 자매 (17세, 인도 첸나이만민교회)



▲ 하나님의 사랑 속에 축복이 넘치는 야무나 자매(왼쪽) 가족(아버지 발라수브라미니 성도, 어머니 푸시파 성도, 동생 마두마디 자매).

2009년, 오순절 교회를 다니던 저희 가족은 킬파크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신앙생활 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첸나이만민교회 마리아 성도의 인도로 그해 12월 25일, 교회에 등록했지요. 이곳에서 저희 가족은 살아 계셔서 응답하고 축복하시는 좋은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2008년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앓고 일어서는 것도 힘들었고, 지팡이를 의지해 다니셔야 했기에 일을 다니기도 어려워 하셨습니다.

그러던 교회 등록 후 GCN(www.gcnet.org) 생방송으로 드리는 금요일예배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고 치료받았으며, 직장도 좋은 곳으로 옮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10여 년간 고생하던 위궤양을 치료받으셨지요.

뿐만 아니라 동생은 일 년간 눈 밑에 생겼던 사라지기를 반복하

던 피부 알레르기가 갑자기 얼굴 전체에 퍼져 피부가 거칠어지고 가려워서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한정희 담임 목사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시고, 무안단물(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로 변화된 기적의 물)을 뿌리면서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저 또한 2014년 3월, 고등학교 입시를 놓고 교회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 기도 요청을 해 당회장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받은 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현재 저는 교회에서 자매 중창단과 파워 율동팀으로 동생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남선교회 부회장으로, 어머니는 주일 식당봉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지요. 장차 저는 컴퓨터 분야의 교수가 되어 교회와 목자를 돕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사랑의 목자,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명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D/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들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북 괴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재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성곡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탈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D/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